

기본 발매 정보

음반명: 공범들 (A Conspiracy to Sing and Dance)

아티스트: 여러 아티스트 (Various Artists)

발매일: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형태: 오디오 CD / 18곡 / 1회 제작

기획·디자인: 모임 별

제작: 비단뱀클럽

판매: 김밥레코즈 - 예약 판매 일정 추후 공지

가격: 30,000원

/

음반 기획 관련 문의: 모임 별 조태상 byul@byul.org

음반 구입 관련 문의: 김밥레코즈

참여

음악: 교정, 까데호, 넷갈라, 디구루, 말립, 뎀키, 모임 별, 모허, 미역수염,

보재,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세이수미, 세일러 허니문,

야자수, 이민휘, 키라라, 파란노을, 피치트릭하이재커스

커버 아트웍: 이우성, 〈아무도 내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2011

<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Page.do?wrkinfoSeqno=9300>

음반 마스터링: 제임스레코드 × 볼트 스튜디오

참고 자료(링크)

음원 청취 및 프레스킷 다운로드 전용 링크

<https://gongbeomdeul-listen.pages.dev/>

CD 이미지 및 부클릿 PDF

<https://gongbeomdeul-listen.pages.dev/booklet.pdf?v=b0bb32986ec2>

-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이들과 함께”

컴필레이션 음반 『공범들』, 10월 12일 CD 발매

18팀의 음악가가 참여한

컴필레이션 음반 『공범들 (A Conspiracy to Sing and Dance)』이

2026년 10월 12일 발매된다.

음악가들이 각자의 작업을 보탠 이 음반은,

음악이 계속 만들어지고 함께 들릴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며 마련되었다.

작은 공연장과 클럽은 새로운 음악이 청중을 만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도가 받아들여지는 장소다.

라이브 공연과 DJ 세트, 전자음악과 춤이 이어지는 이 공간들의 지속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창작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만날 수 있는가와도 연결된다.

『공범들』은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의

두 달간 영업정지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곳에서 공연한 경험이 있는 이들뿐 아니라,

이 사건이 새삼 드러낸 소규모 음악 공간의 현실에 공감한 음악가들이 기꺼이 참여했다.

그 참여에는 음악을 만들고 나누는 장소가 오래 이어지기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사려 깊게 담아내기를 바라는 뜻이 담겼다.

수록된 18곡 대부분은 이번 음반을 위해 새로 작곡하고 녹음한 음악이다.

미공개곡과 국내 미발표곡을 함께 수록했으며,

참여한 음악가들은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방식으로 이 작업에 응답했다.

취지에 공감한 이우성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아무도 내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2011)를

커버 아트웍으로 내어주었다.

음반 전체의 마스터링은 제임스레코드와 볼트 스튜디오가 맡았다.

음반은 CD로 한 차례만 제작한다.

추가 제작과 스트리밍 발매는 없으며,

음반 제작과 판매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판매 수익 전액은

정산 후 오방가르드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범들

A Conspiracy to Sing and Dance

한 장의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공간에서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2026년 8월 26일부터 두 달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여전히 ‘유흥’의 기준으로 다루는 현행 제도는
오늘의 공연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리고 소규모 음악 공간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여러 목소리와 행동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했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방가르드가 버텨야 하는 두 달은 한 공간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전기요금, 장비 할부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모임 별은 여러 차례 오방가르드에서 공연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이 이 어려운 시간을 건디는 데 조금이나마 실제적인 도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동료들과 함께
컴필레이션 음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음악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온 이들입니다.
저희는 열띤 팬으로서 이들의 작업을 즐겨왔고,
동료로서 이들이 창작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을 깊이 신뢰합니다.

오방가르드에서 공연한 경험이 있는 이들뿐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아티스트가 망설임 없이 흔쾌히 참여했습니다.
처음 참여를 요청한 뒤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음악을 준비해 보내주었습니다.

수록곡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곡들과 국내 미발표 신곡들을 포함하며,
대부분 이번 음반을 위해 새로 작곡하고 녹음한 결과물입니다.

이 음반은 오방가르드가 견뎌야 할 시간을 함께 버티기 위한 연대이자,
이번 영업정지가 드러낸 소규모 음악 공간의 현실을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이 문제는 라이브클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DJ와 전자음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소규모 음악 공간 역시 같은 제도와 규제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며,
필요한 변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에 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필요한 안전 기준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도 개선의 과정에서는 영세한 공간들이 감당해야 할 조건과 부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음악 공간들이 지속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공범들』은 스트리밍 없이 CD로만 한 차례 제작합니다.
제작 등에 직접 드는 비용을 제외한 판매 수익 전액은
정산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오방가르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안에 각자의 작업을 완성하고 기꺼이 내어준
모든 참여 음악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흔쾌히 커버 아트워크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내어준 이우성 미술작가,
음반의 마스터링 작업을 담당한 제임스레코드와 볼트 스튜디오,
배급을 맡아준 김밥레코즈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음반을 함께 즐겨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방가르드에 다시 음악이 흐르고,
제도 역시 현장에 맞게 바뀌어 전국의 소규모 음악 공간들에서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공범들’이 아닌 상태로,
음악을 듣고 함께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별

교정, 까데호, 넷갈라, 디구루, 말립, 멜키, 모임 별, 모허, 미역수염,
보잭,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세이수미, 세일러 허니문,
야자수, 이민휘, 이우성, 키라라, 파란노을, 피치트릭하이재커스
/
제임스레코드 x 볼트 스튜디오

A Conspiracy to Sing and Dance

We have put together an album.
Ovantgarde, a live music club in Busan, was ordered to close for two months beginning August 26, 2026,
because audience members danced to music in a space registered under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category.

As of October 10, 2026, current regulations still treat the natural act of moving to music as a matter of entertainment licensing. They do not adequately reflect contemporary live music culture. We share the concerns of those who have spoken out and taken action to bring attention to this issue and call for reforms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small music venues.

Regulatory reform takes time and involves many steps. For Ovantgarde, these two months could determine whether the venue survives. Rent, electricity bills and instalment payments on equipment continue even while it cannot operate.

Byul.org has performed at Ovantgarde several times, and we value the time we have spent there. We wanted to offer some practical help as the venue gets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That led us to put together a compilation album with fellow musicians we respect and care about.

The participating musicians work in different fields, each with a distinctive musical voice. We have long been avid fans of their work, and as fellow musicians, we trust their approach to making music and their creative choices.

Artists who had performed at Ovantgarde, as well as others who supported the purpose of the project, agreed to take part without hesitation. In a little over two weeks following our initial invitation, they prepared and sent us their music.

The album includes previously unreleased tracks and new tracks not previously released in Korea. Most were written and recorded specifically for this album.

This album is an act of solidarity to help Ovantgarde through this period. Through the music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t also serves as a record of the realities facing small music venues that this suspension has brought into focus.

The issue extends beyond live music clubs. Spaces centred on DJs and electronic music, along with other small music venues, have also been affected by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We are deeply grateful to those who have continued to raise awareness of these realities, bring together voices from the music scene and work towards necessary change.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ir efforts and support their ongoing work.

Necessary safety standards must be upheld. Reforms must also take full account of the demands they place on small venues. We hope workable solutions will be found that reflect the realities and perspectives of the people who run these spaces, allowing a diverse range of music venues to continue operating.

A Conspiracy to Sing and Dance will be released exclusively on CD in a single production run, with no streaming release. All sales proceeds remaining after direct production and related costs have been deducted will be transferred to Ovantgarde following final accounting an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procedures.

We thank all the participating musicians for completing their work within a short time and generously contributing it to this album. We are also deeply grateful to artist Lee Woosung for offering his work for the cover, to JAMESRECORD and Vault Studio for mastering the album, and to Gimbab Records for handling its distribution. Above all, our special thanks go to everyone who listens to and enjoys this album.

We hope music will return to Ovantgarde, and that regulations will change to reflect the realities of small music venues across Korea, allowing everyone to listen to music and dance together at ease, without being “conspirators.”

Byul.org

GYOJUNG, CADEJO, NET GALA, dguru, MAALIB, MELKI, Byul.org, Moher, Seaweed Mustache, bojvck, Bulnabang Star Sausage Club, Say Sue Me, Sailor Honeymoon, Yajasu, Minhwi Lee, Woosung Lee, KIRARA, Parannoul, Peach Truck Hijackers

/

JAMESRECORD × Vault Studio